

PA-23

경남지역에 적합한 쌀가루 가공용 벼 직파재배에서 최대 안정생산

이성태^{1*}, 성덕경¹, 남진우¹, 이병한¹, 김영광¹

¹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,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[서론]

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밥쌀용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인,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간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국내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14년 535천 톤에서 2018년에는 756천 톤으로 증가되었다. 최근 쌀가루 가공용으로 개발된 벼 품종 중에서 경남지역에 적합한 ‘신길’과 ‘가루미2호’의 최대 안정생산을 위한 시비기술 개발이 요구되었다. 본 시험은 경남지역 적합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직파재배 시 수량, 수발아 특성 및 손상전분 함량을 분석하여 원료곡 최대 안정생산으로 쌀가루 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쌀가루 가공용 벼 재배실험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연구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직파시기로 신길은 5월20일, 가루미2호는 6월10일이며 무논점파 기계파종을 하였다. 최대 수량을 위한 적정 질소시비량을 구명하기 위해 질소는 18, 21, 24 및 27 kg/10a 처리하였고 가루미2호는 9, 12, 15 및 18 kg/10a으로 처리하였다. 그리고 인산과 칼리비료는 각각 4.5 및 5.7 kg/10a으로 모든 처리구에 동일하게 시용하였다. 벼 품종별 재식밀도는 신길은 30×14 cm, 가루미2호는 분얼수가 적어 30×12 cm로 점파하였다. 벼의 수량구성요소, 수발아율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고 손상전분 함량 분석은 Megazyme kit을 구입하여 AACC method 79-31에 의해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경남지역에 쌀가루 가공용 벼로 적합한 신길(연질미)과 가루미2호(분질미)의 최대 안정생산을 위한 질소시비량은 각각 22.3, 11.5 kg/10a이었고 이때 10a 당 현미수량은 각각 765, 536 kg/10a이었다. 신길과 가루미2호 모두 질소시비량 수준이 도열병, 잎집무늬마름병 및 벼멸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. 신길과 가루미2호 모두 수확시기의 건조한 날씨로 질소시비량 차이에 따른 수발아 발생은 없었다. 손상전분은 신길의 경우 질소시비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질소 27 kg/10a 처리에서 3.9%이었으나 면 제조를 위한 품질기준 10% 이하로 양호하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(과제번호: PJ012960082020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교신저자: Tel. +82-55-254-1222, E-mail. lst08@korea.kr